

암·관절 특화, 자연 속 첨단의료 구현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글 이미숙 KFPA 교육홍보팀 과장



임명재 사무국장

이번호에서는 첨단의료와 환자안전, 친절서비스,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춘 병원이라는 입소문으로 전라로 화순이라는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고 수도권 등 타 지역을 물론 외국인 환자도 찾아오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방문하여, 임명재 사무국장과 정정삼 시설과장을 만나보았다.

자연 속에서 첨단医료를 구현하는 상급종합병원

2004년 4월 개원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병원의 분원으로 국내에서 유일한 郡단위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이다. 701병상을 갖추고 의사 270여명, 간호직 430여명을 포함한 1,200여명의 직원이 연간 70여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임명재 사무국장은 “암과 관절분야의 특화병원으로서 6대암 수술은 수도권 4개 병원과 함께 ‘전국 TOP5’로 평가받고 있다”며 강한 자부심을 보였다. 관절 분야는 국내 대학병원 중 최초로 로봇인공관절 수술을 도입하고 미국특허도 보유하고, 외국 의사들도 배우러 올 정도로 세계무대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한다. 특히 네비게이션을 이용한 뇌종양 수술은 국내 최초이자 최대 시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암환자에게는 항암치료와 수술 못지않게 심리적 안정과 휴양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며, 특히 숲은 뛰어난 면역효과를 제공하여 ‘그린 닥터’라고도 불린다.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 속에 살아 숨쉬는 듯한 외관을 자랑하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2008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연환경을

접목한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수 만 본의 꽃과 나무를 심어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의 심신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국립대병원 최초 JCI(국제의료기관평가) 인증 획득

대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개원 당시부터 암·관절 의료영역 특성화, 자연친화, 고객만족에 역점을 둔 결과, 국내·외에서 그 노력을 인정받고 있다.

2005년 의료기관서비스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2011년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으로서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국제메디컬센터를 개소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2013년에는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5년 연속 우수병원으로 선정되었고, 병상당 암수술 전국 1위, 2012년 해외환자 유치 증가율 전국 1위, 4년 연속 정부의 ‘해외환자 유치 육성사업 대상’ 선정 등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국립대병원으로서는 최초로 JCI(국제의료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후 2013년 재인증도 성공하였다.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미국 의료기관의 의료수준을 평가하는 비영리법인

JCI 재인증 평가단 방문



JCAHO가 1994년에 세운 국제기구로, 시카고에 본부를 두고 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엄격한 국제 표준으로 서비스 심사를 거친 의료기관에게 발급되는 JCI 인증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환자가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퇴원까지 치료의 전 과정을 11개 분야 1,033개 항목에 걸쳐 세밀하게 평가하며 3년마다 재평가한다.

임 사무국장은 “세계 최고수준의 전문의료센터가 된다는 비전을 갖고 지역적인 한계에 굴하지 않고 글로벌 병원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국내에서는 연세세브란스와 고대안암병원과 함께 3번째로 인증을 획득하였다.”며, “JCI 인증을 획득한 것은 국내 병원도 해외 우수 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환자치료 조건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남권은 물론 수도권, 영남권 환자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해외 환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수준에 맞는 안전관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의 화재안전관리는 국제수준이다. 정정삼 시설과장은 “병원 특성상 화재가 나면 대형 피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원 당시부터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왔으며, 특히 의료수준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시설관리 및 화재안전관리 분야에도 매우 까다로운 JCI 인증을 받기 위해 적극 투자해 왔다”고 했다. KFPA의 화재안전점검 후 권장사항도 즉시 반영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로 선정되

기도 하였다. 세계 유수의 병원들을 평가해온 JCI 평가단이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을 둘러보며 ‘이렇게 철저하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곳은 처음 본다’라고 했을 정도라니, 그 수준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직원들의 안전교육 역시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 법적으로만 맞추어 피상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은 3~4인씩 조를 편성하여 유사시 직원 개개인이 해야 할 일과 방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화재 규모별 장소별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그에 맞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 임직원이 화재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전의식을 갖추고 있어서 안전관리 담당자로서 할 일은 많지만 일할 맛 난다’고 귀띔해 주는 담당자를 보며 환자의 쾌유와 안전을 생각하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에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다.

쾌적한 전원도시에 자리잡아 ‘치료’와 ‘치유’가 가능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중소도시에 있지만 의료혁신과 뛰어난 경쟁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미국의 메이요병원과 닮은꼴인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앞으로도 세계적인 찾는 글로벌한 병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본다. ☺

치유의 숲에서 환자가 산책을 하고 있다.



수술실 소방훈련

